

광산구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교실 시작부터 열기

이주노동자·고려인동포·중도입국 자녀 대상 '초록빛 새싹학교' 본격 운영 광산구 가족센터·월곡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서 11월까지 맞춤 수업

광주 광산구가 고려인 동포 자녀, 이주노동자, 중도 입국 자녀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소통을 돕기 위한 맞춤 한국어 교실을 마련해 인기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광산어학당 한국어 교실 '초록빛 새싹학교'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 외국인 주민의 절반 이상이 광산구에 거주하고, 광산구 월곡동 소재 초등학교 내에 한국어가 서투른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월곡동 소재 모 초등학교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전체 학생 수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입학하는 학생 비율도 증가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이 언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어 교실 '초록빛 새싹학교'를 마련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지난 16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 가족센터'와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2곳에서 진행한다.

교육 희망자가 예상 정원의 두배 이상 몰려드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도 뜨겁다.

광산구는 한국어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어 초급반과 한국어 초·중급반 2개 반으로 운영하고, 한글 기초와 일상생활 표현, 필독서 중심 읽기, 글 쓰기, 학습 언어 등 한글 기초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은 초록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무료 운영한다.

광산구는 한국 청소년들도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교실과 지



지난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광산어학당 한국어 교실 '초록빛 새싹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역아동센터 등 주요 거점 공간에 한국어·다국어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광산어학당' 운영도 준비 중이다. 또 언어, 학습, 놀이, 문화, 심리, 정서, 진로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과 함께 긴

밀한 민간학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광산어학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교육도서관과(062-960-8536)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어려운 행정업무 마을행정사가 도와드려요 광산구 매주 목요일 무료상담

광산구는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마을행정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21일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산구청 1층 민원법무과 내에 마을행정사 상담창구를 마련한다.

창구를 방문하면 광산구가 위촉한 5명의 마을행정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행정업무와 관련해 전문적인 조언·상담을 해준다.

상담 분야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 각종 계약, 협약·청구 등 작성, 법령·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이다.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비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행정업무와 관련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마을행정사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병규(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광산구청장이 지난 13일 구청 회의실에서 광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을새마을금고, 우산신협 대표들과 '2024년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광산구,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 지원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24억 원 규모 1년간 대출이자 보전

광주 광산구는 "지역 금융기관과 손잡고 24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 13일 구청 회의실에서 광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을새마을금고, 우산신협과 '2024년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고금리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등에게 무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광산구 1억 원, 농협은행 7000만 원,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을새마을금고, 우산신협 각 1000만원씩 재원을 출연해 총 24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광산구는 1년간 대출이자의 4.5%를 보전

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상환은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은 농협은행,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을새마을금고, 우산신협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에서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추진하는 광산의 특례보증은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구비 10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금 179억 원을 소상공인 1028개 업체에 지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장록교 재가설 공사기간 시민 불편 없도록 최선

광산구,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시에 안전한 보행시설 설치 건의

광주 광산구는 "장록교 재가설 공사를 앞두고 공사기간 시민,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에 안전한 보행 시설 설치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1979년 왕복 2차로 교량으로 지어진 장록교(도산동 971-3 일원)는 그동안 별도의 보도가 없어 길을 지나는 주민이 난간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교량 개설 후 44년이 흐른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장록교 재가설 공사를 '황룡강 송정지구 하천정비사업'에 포함했으며, 설계 용역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신설 교량 상행선이 완공될 때까지 추가적인 통행 시설 설치

없이 기존 장록교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 통행 불편 등이 예상되고 있다.

광산구는 기존에도 장록교 교량에 인도가 없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점을 토대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에 철거 예정인 교량을 활용한 보행 시설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 점용 허가를 얻어 장록교 인근 장록동 마을 앞 인도를 정비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장록교 재가설 공사 중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록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062-410-5830)와 광산구 건설과(062-960-8562)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전남 8대 정자 '호가정' 경관조성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가 영산강 6경, 광주·전남 8대 정자인 호가정(광산구 분덕동 1번지 일원)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호가정은 조선시대인 1558년 선비 설강 유사(柳泗)가 낙향 후 지은 정자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소실됐다가 고종 8년 중건됐다. 영산강과 황룡강 합수부,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도 유명하다.

이번 경관조성 사업 면적은 3500㎡이며, 호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영산강과 황룡강의 합수부를 조망할 수 있는 수변 데크와 경관정원 등을 조성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2년이다.

광산구는 최근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은 물론 영산강, 황룡강 자연기질 이용자들이 머물며 쉬어가는 호가정이 더욱 매력적인 명소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민선 8기 광산구가 추진하는 황룡강생태길30 조성 사업은 물론 광주 'Y벨트'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돌봄이웃시설 실내공기질검사 광주보건환경연, 선착순 15곳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등 돌봄이웃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무료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사 대상시설은 연면적 430㎡ 미만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해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검사 항목은 라돈,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 등 3가지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총부유세균과 부유곰팡이는 호흡기질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 실내공기 오염물질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613-7516-7517)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며, 선착순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수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가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가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